

KAIST Business School Journal
2007 Summer
Vol. 12

Frontier





Cover Story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사회생활이란 단적으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가장 보편적으로 나누는 인사가 바로 악수입니다. 예로부터 손은 사람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수가 세계적인 인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악수'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의를 알리고, 경계심을 낮추며, 함께 감정을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희망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 희망과 기대를 시작으로 상대방과 만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맞잡은 손이 대변하는 당신이, 당신의 능력, 당신이 펼쳐나가는 무수한 만남이, 자신과 기업과 더 나아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 희망찬 악수와 그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것은 인재 양성의 메카, KAIST 경영대학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 Kain Zernitsky _ Illustrator

Contents

Vol.12

04 나침반 제2의 KAIST를 짓는다면 _ 배순훈 교수(KAIST 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05 생각의 숲 창조적 삶이 세상을 바꾼다 _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SPECIAL ZONE

07 SPECIAL EVENT 제4회 KAIST CEO Forum

10 SPECIAL THEME KAIST 경영대학의 경쟁력을 논한다

INSIDE ZONE

18 WE ARE THE KAIST 시장 및 전략설계 연구실

20 CAMPUS EVENT 2007 Homecoming Day

POWER ZONE

22 TODAY'S KAIST KAIST MBA Class of 2007, 그들이 선택한 미래 _ 김한주 교수(MBA Director)

24 KAIST 세계를 가다 1 Being Globally Responsible Conference 2007 at CEBS, Shanghai

26 KAIST 세계를 가다 2 중국이라는 코끼리를 공략하는 법

FAMILY ZONE

28 KAIST NETWORK 1 MBA 여동문을 만나다

30 KAIST NETWORK 2 경영공학 몽골 3인방

NEWS ZONE

32 발전기금 KAIST 경영대학 자문위원회 역할 및 기대 _ 김영걸 교수(대외협력위원장)

33 KAIST NEWS

35 알림 2008학년도 MBA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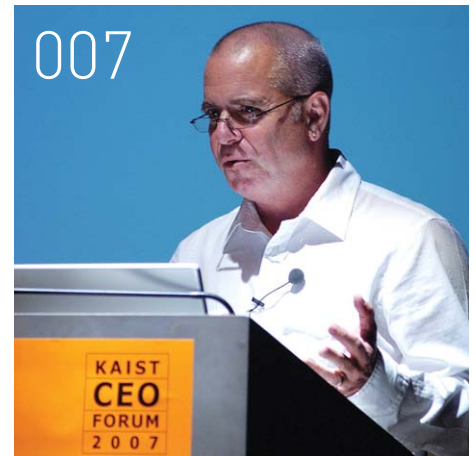
Vol.12 · 통권 제40호 · 비매품

발행일 2007년 8월 2일 | 발행인 배순훈 | 편집인 김한주

편집 · 기획 KAIST 경영대학 마케팅실 | 취재 이경민 · 이대상 · 이병진 · 최원석 · 황성원 · 황여진

발행처 KAIST 경영대학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7(청량리2동 207-43) | T 02 958 3246~7 | F 02 958 3240

디자인 지오디자인(02 3445 6407 | g5design@naver.com)



제2의 카이스트를 건설한다면



➡ 배순호 교수 _ KAIST 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파키스탄에서는 앞으로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교육부에 KAIST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데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환 前 장관은 통일의 바탕으로 DMZ 안에 제2의 KAIST를 건설하는 것을 대신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경제 발전에는 과학 기술 인재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KAIST 같은 성공적인 교육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 경제 발전이 성공적이었고 그 발전 안에 KAIST의 기여를 중요하게 평가한 셈이다.

KAIST 이전의 이공계 대학원은 여럿 있었고 당시의 국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였다. 정부는 1971년 서울의 일류 대학을 선정하여 그 이공계 대학원을 확충하는 방안 대신에 신설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교육부 대신에 과기부 산하의 대학원으로 설립하여 최대한 자주적인 행정을 하도록 했다. 교수진은 대부분 외국에서 유치했고 행정 요원은 기존 정부기관에서 선발하여 진출하였다. Stanford에서 교수 여러 분을 초빙하여 계획 수립에 도움도 받고 초기 교과목을 설치하는데도 도움을 받았다. 3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단기적인 학교 수립 임무는 달성했다. 세계 일류 대학으로 인정받고 독자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이나 북한에 같은 임무를 가지고 새로 설립하는 기관들이 KAIST에서 배울 것이 많다.

우선 졸업생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산업 환경을 극복하고 산업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틀림없이 핵심적 기여를 했다. 우리 기업들이 오늘 날 미국의 우수한 기업과 세계 시장에서 독특한 경쟁력을 갖고 수익성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MIT, Stanford 출신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달성했다. 이 한국 기업에서는 KAIST 출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기술 경영자를 양성하는데 KAIST는 어떤 교육을 했기에 다른 국내 대학이나 미국 일류 대학보다 더 효과적인 이공계 대학원 교육을 했다고 하는가? 차별화하기 보다는 성실히 기본을 지키면서 세계 수준의 질적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KAIST가 우리 산업발전에 두드러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선진 기업에는 어떤 과학 기술인재가 필요할 것인가?

은퇴하시는 교수들 몇몇 분은 전문분야 연구를 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KAIST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연구 대학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졸업생들이 일하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여럿 있는 것에 비해 KAIST 교수의 연구 결과는 아직 세계적인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보강하면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인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산업과는 멀리 떨어진 연구를 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것이 KAIST 교수진이 하고자 했던 일인가는 의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KAIST는 발표된 교수논문의 양적 평가에 의해 그 명성을 얻고 있다.

졸업생들이 한국 산업체에서 활약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 왔는가? KAIST 졸업생들의 업무 성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조사는 아직 없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은 특징은 없더라도 성실성 면에서 다른 대학을 능가하고 있다. 자격있는 입학생이 선발되고 철저한 교육을 해 왔다. 외국 대학에 비해 크게 현실에 적응하여 차별화되는 점은 없었다. 여건에 맞는 교육은 아직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어도 파키스탄이나 북한에서는 당분간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향후 중진국을 넘어 한국 속에서 KAIST 미래는 창의적 교육에 달려 있다. 세계 일류 연구 대학이 되기 위해서 독창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도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차별화해야 한다. 교수들은 새로운 교육,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형을 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신입총장 취임을 계기로 많은 신입생 선발, 교수 영년직 제도의 개선, 신입교수 유치, 다분야 연구소 설치, 학과중심의 운영 등 획기적인 혁신을 추진해 왔다. KAIST의 새로운 역할정립을 위해 교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F**

창조적 삶이 세상을 바꾼다



➡ 김재철 회장 _ 동원그룹

세계적인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소수의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토인비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창조적인 삶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나 혼다 소이치로(本田宗一郎), 우리나라의 정주영 씨나 이병철 회장, 미국의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업자들, 잭 웰치 같은 CEO들이 바로 그 예일 것입니다. 이들의 창조적인 삶은 기업과 경제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에도 큰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럼 이들처럼 창조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양을 향해하는 선장의 제일 책무는 자기 배의 위치 확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지금 역사의 어느 여울목에 서 있고 지정학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 후 인생 목표를 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부터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이란 과거에 대한 기억력, 현재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기초로 한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우선 우리의 과거 역사부터 봅시다. 우리가 어려서는 찬란한 반만년 역사라고 배웠지만 기실 백성들은 항상 찌들게 가난했습니다. 적어도 근세사 이후는 우민정책과 관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 찢어지도록 가난한 백성들의 고달픔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발전해 비행기를 띄우며 맞은 20세기를 우리는 달구지를 끌며 맞았고 그러면서도 사농공상의 낡은 틀을 고집하다 결국은 나라까지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을 맞았으나 나라가 둘로 쪼개진 채로 독립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린 한참 동안 절대 빈국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 단기간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에 성공하고 동북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제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는 절제를 잃고 사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예사로 법을 유린하며, 사사건건 반대를 외치는 NGO가 수천 개에 이르러 국가 경쟁력이 뒤로 쳐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군 이래의 풍요와 극도의 혼란을 동시에 겪고 있는데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라의 미래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가장 요구됩니다. 잘못하면 일본과 중국의 틈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고 잘하면 동북아에서 캐스팅보드를 쥐고 동아시아 시대를 여는 멋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

기한 아놀드 토인비는 일찍이 세계 문명의 서천설을 주창했습니다. 즉, 이집트 문명이 에게 해를 건너 그리스로 갔고 그리스 문명이 이태리 반도를 거쳐 서유럽으로 옮겨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문명의 중심이 이동했으며 그 문명의 중심은 다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온다는 설입니다.

오늘까지는 그의 이론대로 문명은 몰라도 적어도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의 중심은 분명 아시아로 옮겨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일본, 한국, 중국이 세계 공산품의 제조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4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문명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온 시기에 이 땅에 생을 향유한 우리들은 참으로 행운의 세대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나라 미래는 잘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잘못될 위험도 많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적 삶을 살면 틀림없이 우리 나라는 번영할 것입니다.

그럼 창조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 데도 온 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하려고 마음먹으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그 뒤는 신의 섭리에 맡긴다는 자세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설령 그 일이 잘못되더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둘째로는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창의력은 개방에서 나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많은 것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주위 환경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늘날처럼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많은 독서를 통해 동서고금의 지혜를 섭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경영 간부가 되면 경영학 서적 외에 역사나 철학책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만 일할 게 아니라 가끔씩 현장에 자주 가 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결책도 현장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상생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점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우수한데 단체로는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독 파당 싸움이 심한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화이부동(和而不同)할 수 있는 아량과 또 서로 다른 것을 융합시키는 수렴(Convergence) 능력이 필요합니다.



● 2007 명사초청 특강에서 '창조적 삶'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 ● 특강을 마치고 재학생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거든 베푸십시오. 리더는 힘이든 돈이든 또 지식이든 지혜든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줄 것이 없는 리더에게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면 뭔가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위한 노력은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이 지구촌을 휩쓰는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좁은 국토에 한정하는 좁은 생각을 버리고 넓고 창조적인 사고로 드넓은 세계사에 굵은 획을 긋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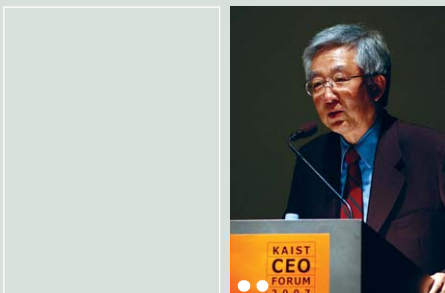
창조, 디자인 그리고 혁신

제4회 KAIST CEO Forum

매년 제주도에서 초여름을 함께 맞았던 KAIST CEO Forum이 올해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봄의 절정에 열렸다. 곧 다가올 여름 맛을 준비로 바빴던 제주도와 달리 1월부터 회사와 가족을 위해 즐기치게 달려온 신현철 SK에너지 사장, 표삼수 오리콤코리아 사장 등 KAIST 동문과 가족, 교수진 등 2백여 명이 한 박자 쉬어가며 “창조, 디자인 그리고 혁신”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느껴지는 그 생생한 열정의 순간들, 즐거움과 깨달음이 함께 했던 2박 3일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자.

Creativity,
Design
and
Innovation

☞: 서유진 _ 테크노 MBA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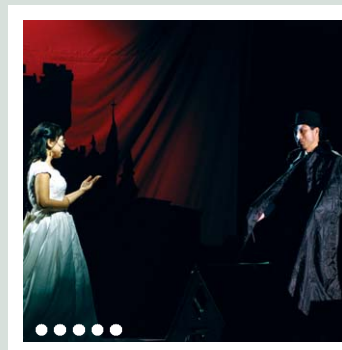
● 기초연설로 ‘창조경영론’을 제시한 Dan Buchner 부사장 ● 인사말씀을 한 배순호 KAIST 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 ● 창조경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오준호 교수 ● ● ● ● ● 휘날려 공연의 오프닝을 멋지게 열어준 가수 김장훈



‘창조적인 기업이란 무엇이고 창조경영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아마도 많은 CEO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포럼 첫날, 디자인 컨티눔 Dan Buchner 부사와 KAIST 오준호 교수는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강연을 선보였다. 기업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생명체만큼 창조적인 기업의 핵심역량은 창조적인 인재들을 확보하고 그들이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Dan Buchner 부사장의 강연은 많은 참석자들의 뇌리에 큰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오준호 교수의 한국 최초 두발로 걷는 로봇 ‘휴보’ 개발과정 강연에서 배운 창조경영의 핵심은 ‘시간의 압박을 뛰어넘어 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조금 앞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지식 개발’에 있었다.



● Creativity in Mass Culture 강연 ● CEO Forum의 휘날레 공연이 펼쳐진 야외 공연장 ● 휘날레 공연중 Oh, Happy Day 공연 ● 제4회 KAIST CEO Forum 개회식 모습 ● 휘날레를 멋지게 장식한 뮤지컬 공연



이틀째 아침은 전날과 달리 화창하게 개인 날씨로 시작되었다. 이날 아침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가기 좋은 '나미나라 남이섬'의 주인장 강우현 대표의 **'내 맘대로 하다 보니 네 맘에도 든다'**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660장의 PT슬라이드로 한편의 영화와 같은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강우현 대표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고 즐기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선사하였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펼친 남이섬은 곧 우리 모두의 남이섬이 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경영의 핵심은 바로 직원들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들도 자신처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의 신념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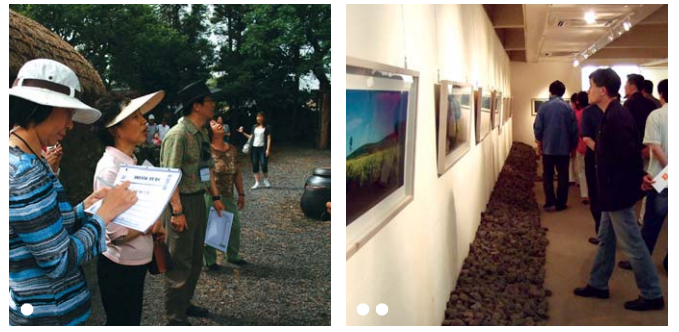
둘째 날은 이번 제4회 CEO Forum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총 집결된 날이었다. 강우현 대표의 강연도 그러하거니와 이후 오전 세션에 진행된 주제별 세부 강연 그리고 오후에 진행된 현장 학습은 배움과 실천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훌륭한 조화였다. 오전의 주제별 세부 강연은 **Creativity in Thinking(창조적인 생각)**, **Creativity in Design(새로운 디자인)**, **Creativity in Marketing(마케팅과 창의력)**, **Creativity in Mass Culture(대중문화에 나타난 창의성)**로 구성되었다. 각 주제는 배순훈 부총장·이대길 교수, 정경원 교수, 배보경 교수(이하 KAIST)·부상훈 진아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이순미 인피니트 부사장, 홍성태 한양대 교수·강형근 아디다스코리아 이사, 이승재 동아일보 기자 등이 강의를 맡았다.

이어진 현장 적용 프로젝트 **'제주문화탐사: Design & Business'** 세션은 창의적 시각으로 제주의 생활과 사업 속에 드러난 디자인과 사업방식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주도의 성읍민속마을, 섬지코지와 일출봉, 제주핀크스 비오토피아, 갤러리 투어, 사인빌리조트 및 골프코스를 중심으로 KAIST 교수와 참석자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경험하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탐사 후에는 디자인·창조경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고객(관광객) 관점에서 제안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CEO Forum의 피날레는 실내에서 탁 트인 야외로 나와 진행되었다. 가수 김강훈의 콘서트로 시작된 이번 공연에는 동문, 가족, 교수, 자원활동 학생들이 어우러져 여러 뮤지컬 넘버들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The Phantom of the Opera' 듀엣곡을 완벽한 무대로 선보인 씨니커뮤니케이션즈(주)의 조선희 대표(K-CEO 7기)와 한국캐피탈(주) 이철하 상무(AIM 26기)의 공연은 저녁 시간을 절정으로 이끈 최고의 무대였다. 이후 조선희 대표, 배보경 교수, 자원활동 학생 등이 모두 함께 부른 'Oh, Happy Day'는 전원 수녀복으로 등장하여 2박 3일의 그 행복한 시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준 무대가 되었다.

이들간의 일정을 소화한 참석자들은 마지막날 체육대회와 제주도 오름 등반을 함께하면서 2박 3일의 일정을 긴 여운과 함께 마무리 하였다.

이번 제4회 KAIST CEO Forum은 더욱 발전적인 면모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우선 딱딱한 강연과 책상 앞에서의 머리싸움 보다는 실제 경영에서 그리고 삶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늘었다. 특히 '창조, 디자인 그리고 혁신'이라는 주제를 제주문화 속에서 적용하고 실습하였던 현장 문화탐험 프로그램과 모두가 하나되어 몰입의 즐거움을 느꼈던 저녁 공연 시간이 빛을 발하였다. **F**



●+●● 제주문화탐사: Design & Business' 프로그램 행사중인 참가자들

INTERVIEW

주제를 잘 살린 강연이 인상 깊어

박응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AIM 26기)

이번 CEO 포럼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이섭 강우현 대표의 '내 맘대로 하다 보니 네 맘에도 든다더라' 강연이 특히 '창조, 디자인, 혁신'이라는 주제와 가장 잘 맞았던 것 같다. 깨달은 것도 많고 남이섭에 배우자와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마도 가서 보면 더 많은 창의성, 혁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CEO 포럼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느끼지 못했다. 잘 구성되었고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들이었다. 다만, 운영상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다. 출발할 때 비행기 탑승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었다는 점과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청주로 가는 비행기를 놓친 사람도 있었다는 점은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CEO 포럼은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는 기회

정종현

매일유업 회장 (AIM 26기)

CEO 포럼을 참가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이번 창조, 디자인 혁신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 잘 구성되었다. 남이섭 강우현 대표 강의와 한양대 교수의 마케팅 강의가 경영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휴보' 강의도 인상 깊었는데, 평소 접하지 못했던 기술 분야는 색다르게 다가오고 또 그런 새로운 것을 접함으로써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 것 같다. 이번 CEO 포럼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장훈 씨와 함께 했던 열정적인 공연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 깊었다. 배우자와 함께 즐기기에 좋았는데 특히 야광봉을 흔들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것들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 우리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이번 CEO Forum의 백미는 그런 자신의 상자, 자기 자신이 그어 놓은 선을 넘어서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감사한다.

동문과 친해지는 계기 아쉬워

이철하

한국캐피탈 상무 (AIM 26기)

이번 CEO 포럼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또 좋은 추억거리가 된 것 같다. 연습하기도 빠듯했고 노래가사 외우는 것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퇴근하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노래방에서 3번 연습한 것이 전부여서 잘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동기들이 잘했다고 하니깐 뿌듯하다. 농담이지만 늦게 바람이 들었다는 동 사인을 해달라는 동 인사를 건네 와서 기분도 좋고 재미도 있었다. CEO 포럼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네트워크 형성 부분인 것 같다. 아직까지는 기수끼리는 잘 되고 있지만 동문들과는 별로 네트워크를 쌓고 친해질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파트너 동반 때 참석을 거의 안했는데 다음 CEO Forum 때는 꼭 함께 오고 싶다.

SPECIAL THEME



KAIST 경영대학의 경쟁력을 논한다



KAIST 경영대학 커리큘럼

1980년 경영과학과 설립으로 시작해
2006년 9월 출범한 KAIST 경영대학.
특히 2003년 국내 경영대학 최초로
AACSB(국제경영대학인증)를 취득하고
아시아 명문 경영대학으로 성장한
KAIST 경영대학은 현재 3개의
전문경영대학원을 두고 있다.
각 대학원들은 특성에 따라 해당 과정의
교육 목적과 철학을 반영한 각각의
교과목들을 가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내용과 특성이 다른
주요 교과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영과학과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으로

2006년 출범한 KAIST 경영대학의 전신은 1980년 시작된 경영과학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영과학과는 KAIST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경영의 접목을 통해 기술, 경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학자 및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설립되었다. 경영과학과에서는 미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조직이론, 연구개발관리, 생산관리, 경제성 공학, 투자공학과 같은 경영학 과목과 더불어 수리통계학, 수리계획법, 추계적과정, 비선형계획법, 동적계획법, 의사결정분석 등의 계량분석적인 방법론을 강조했고, 이를 경영분야에 응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점이 당시의 다른 경영대학과 차별화되었다.

경영과학과는 1995년에 테크노 MBA 과정을 신설하고 이듬해 96년 3월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을 개원하였다. 범세계적 시야와 리더십, 통합적인 안목과 전문적인 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가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술에 기반을 둔 경영/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목표로 일반 석·박사과정인 경영공학과 경영학 석사과정인 MBA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였다.

두 차례 교과과정 개편

1차 교과과정 개편은 테크노경영대학원이 개설된 지 2년 후인 1998년에 이루어졌다. 개편의 골자는 테크노경영대학원 설립 및 교육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교육 목표와 철학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의 명문 경영대학의 교과과정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였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고유의 교육목적과 철학을 반영하고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고민 끝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들을 선정하고, 기술, 정보, 환경전공을 트랙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2003년에는 MBA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국내 경영대학원 최초로 AACSB(국제경영대학인증)를 취득하였고, 아시아 명문 경영대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차 교과과정 개편은 일반 석·박사 과정의 학문적 탁월성을 제고하고 MBA 과정의 세계적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통합적인 지식과 유연한 사고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공학 석사과정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고급계량과목, 거시경제, 수학과목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었다. MBA 과정에서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영어로 개설되는 교과목 수를 늘리고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과목을 21학점에서 12학점으로 대폭 줄였다(교과석사 기준). 또한 경영학 지식을 실제 경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 Capstone 교과목을 개설했다.

KAIST 경영대학 출범

2006년 9월 출범한 KAIST 경영대학은 3개의 전문경영대학원을 두고 있다.



각 대학원에는 그림과 같이 세부 과정이 존재하며, 각 과정의 교과목들은 해당 과정의 교육목적과 철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특성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각 주요 교과과정의 내용과 특성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 석·박사 과정(MS/Ph.D.)

경영공학 석·박사 과정은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설립된 정규 교과 과정이다. 현재 경영관리(전략, 조직, 마케팅, 기술 및 생산경영, 국제경영, 환경경영, 기술경영), 정보기술(MIS, Database, 지식경영시스템, 통신경제 및 통신정책, 통신경영), 경영분석(재무학, 금융공학, 회계학, 경제학, 통계학) 등 3분야로 나뉘어 있다.

경영공학 전공은 1980년에 신설된 경영과학 전공을 모태로 하는데, 경영과학 전공은 다른 경영대학에 비해 계량 분석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 전통은 변함없이 이어져 경영공학 전공에도 확률 및 통계, 통계적 분석방법론, 조직행태론 등의 과목이 기본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대다수의 학생이 학부 때 공학을 전공한 만큼 계량 중심의 교과목이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조직행태론 등과 같은 행태 연구 과목에도 무게를 더해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테크노 MBA

테크노 MBA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높일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경영자 양성을 목표로 지난 1995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전일제(Full-time) 제너럴(General) MBA 과정'이다. 제조업은 물론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경영을 통합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윤리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 CEO를 기르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경영학의 핵심 분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개별 학생이 스스로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에 맞춰 최적의 교과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과정을 설계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경영학 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현재 테크노 MBA에서는 전략 및 조직, 마케팅, 벤처 경영, 회계 및 재무, 기술 생산 경영, MIS, 환경 경영, 경영과 법 등 8개의 집중 분야



(Track)를 운영하고 있다. 집중 분야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 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그 외에 최대 2개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집중 분야 이수를 위한 필수 과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Track	지정 과목 예시
기술·생산경영	글로벌 공급사슬 관리, 기술경영 및 전략, 기술혁신관리 등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조사론, 소비자행동론 등
벤처경영	기술경영 및 전략, 기업가정신과 창업, 신기술과 하이테크산업 등
회계·재무	투자분석, 선물 및 옵션, 재무제표분석 등
MS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정보시스템분석설계, e비즈니스 정보기술 등
전략 및 조직	국제경영, 인사관리시스템과 전략, 조직설계론 등
환경경영	기술경영 및 전략, 환경경영론, 자원환경경제학 등
경영과 법	Course Group 1 기업경영 기본법, 기업경영과 회사법, 법과 경제학
	Course Group 2 상가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세법

경영학 이론을 통합해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 팀워크를 강조하는 KAIST 경영대학의 학풍은 테크노 MBA 과정의 경영자문 실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경영자문 실습은 테크노 MBA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실시되며, 재학 기간 동안 배운 경영학 지식을 실제 경영 현장에 접목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

고 학생들의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 자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학생 팀들의 보고서는 비즈니스 케이스로 개발돼 관련 교과목 강의에서 사례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영학 이론이 실제 현장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제 경영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CEO, 각계 리더들의 특별 강연들은 재학생들에게 리더십과 삶의 지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 올해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이휘성 한국IBM 사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더들이 초청돼 그들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IMBA

IMBA는 2006년 신설되었으며, 기업 파견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MBA 프로그램이다. 지난 10년 간 테크노 MBA를 국내 최고의 MBA로 발전시키면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 교과과정을 구성했다. 기업에게 필요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진 '제너럴 매니저(General Manager)'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MBA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54학점 이상에 달하는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방식은 학습그룹 위주로 운영되는 코호트(cohort)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어 통합적인 교육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타 대학의 '파트타임(Part-time) MBA'와는 차별화된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총 이수 학점 54학점 중 45학점은 코호트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나머지 9학점은 개별 IMBA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여름과 겨울 학기에는 지역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인도 등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시장에서의 마케팅과 해외 현지 경영 등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면서도 기업의 당면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기간은 '1년 전일제+0.5학기 캡스톤(Capstone)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한 학기 캡스톤 프로젝트는 IMBA 학생이 파견된 기업에 복귀해 기업이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목표로 수행된다. 캡스톤 프로젝트는 1년간 풀타임(full-time)으로 학습했던 경영학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기업의 현안과 미래의 성장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의 계기가 된다.

Executive MBA

EMBA 프로그램은 금~토 주말에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2년 과정으로 2004년에 개설되어 2007년 현재 1, 2기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3, 4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1년차 봄, 가을 학기에는 리더십과 조직변화, 정보기술관리, 회계 및 재무제표분석, 마케팅 관리, 기업재무, 통계적 의사결정과 같은 경영학 기초 핵심 분야가 개설되며, 여름 학기에는 협상 및 갈등 관리를 비롯해 글로벌 마인드 배양을 위한 글로벌경영커뮤니케이션 교과목과 해외 현장 연구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특히 해외 현장 연구에서는 선진 대학에서의 강의와 해당 국가의 초일류 기업을 방문하면서 글로벌 시각을 키우게 된다.

2년차 봄, 가을 학기에는 경영전략 및 정책, e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기술경영 및 혁신, 관리경제학, 생산경영 및 공급사슬관리,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과 같은 경영학 특화분야가 개설된다. 2년차

여름, 겨울 학기에는 협상 및 갈등 관리, 6시그마 관리, 전략적 고객관계 관리 등 새로운 경영 트렌드를 반영하는 교과목이 개설된다. 여름 학기에는 현장적용 프로젝트 과목을 통해 학교에서의 교육을 현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연구 과목이 개설된다.

총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공통 3학점, 전공 필수 36학점, 선택 6학점, 연구 3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개설된 교과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Leadership & Organizational Change (리더십과 조직변화)
- IT Management (정보기술관리)
- Accounting &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회계 및 재무제표분석)
- Marketing Management (마케팅관리)
- Corporate Finance (기업재무)
- Decision Analysis & Statistics (통계적 의사결정)
- Strategic Management (경영전략 및 정책)
- E-Business and E-Commerce (e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기술경영 및 혁신)
- Managerial Economics (관리경제학)
- Operations Management & SCM (생산경영 및 공급사슬관리)
-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 Negotiation & Conflict Management (협상 및 갈등관리)
- 6 Sigma Management (6시그마 관리)
- Business Forecasting and Strategies (경영예측과 전략)
- Enterprise Risk Management (전사적 위험관리)
- Strateg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전략적 고객관계관리)
-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글로벌 경영커뮤니케이션)
- Field Application Project (현장적용프로젝트)
- International Field Trip VII (해외현장연구 VII)

위의 교과목 커리큘럼 이외에도 EMBA 프로그램에서는 EMBA 학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함양을 위해 배우자 초청 간담회, 1·2년 차 통합 워크숍, 문화 행사, 조찬 세미나 등 다양한 과외 활동들이 제공된다.



금융전문대학원

금융 MBA

2006년 2월에 설립된 금융전문대학원은 재정경제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 유일의 금융전문대학원으로 금융 업무에 필수적인 계량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한 학기 동안의 해외 교환 학생 과정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어 미국의 'Top-tier' 경영 대학원에서 금융 분야의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는 경험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KAIST 특성에 맞춰 금융 MBA 과정은 학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논문 석사 학위'와 금융 지식과 관련 경험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 석사 학위' 두 종류의 이수 요건을 제공한다. 논문 석사 학위를 선택할 경우 지도 교수와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논문 연구 훈련을 하게 되며, 교과 석사 학위 선택 때에는 전공 선택 과목을 더 이수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교과 과정을 보자면, 학생들은 7개의 필수 교과목을 통해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수리적, 분석적 지식을 쌓으며 8개의 세

부 트랙 중 자신이 집중하는 최대 2개의 트랙을 선택해 전문적인 분야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아래 표에 자세한 트랙 별 교과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트랙내의 모듈들 중에서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Track	지정 과목 예시
자산운영 전문가	투자전략 모듈, 채권 모듈, 파생상품 모듈, 금융시장 모듈
금융공학 전문가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금융모형 모듈, 위험관리 모듈
금융경영 및 전략 전문가	금융경영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금융시장 모듈
투자은행 전문가	기업금융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금융경영 모듈
보험 전문가	보험 모듈, 투자전략 모듈, 위험관리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위험관리 전문가	위험관리 모듈, 보험 모듈,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국제시장 전문가	동북아금융 모듈, 금융시장 모듈, 가치평가 모듈, 파생상품 모듈
회계 및 재무 전문가	회계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경영 모듈

금융 학생들의 평균 직장 경력이 약 7.7년이 되는 등 학생들의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도 뛰어나다. 소규모의 수업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 간에 서로의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어 학생들의 전문 지식 능력 고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들과 4쿼터제로 운영되는 엄격한 교과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로이터, 맥쿼리 등의 금융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교수진의 충원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 시설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금융전문대학원은 한국의 동북아 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인력 개발에 큰 사명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금융전문대학원은 그 역사는 짧지만 한국, 동북아, 나아가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정보미디어 MBA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전통적인 IT 분야와 새롭게 떠오르는 미디어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키우기 위해 2006년 3월에 설립되었다. 한국은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주관 국제회의에서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국가에 선정될 정도로 IT 강국이다. 하지만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IT는 더욱 빠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IT와 미디어가 접목되고 있는 컨버전스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디어 분야라 함은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포탈, 교육, 방송 등 모든 콘텐츠를 다루는 분야를 말한다. 이런 변화 속에 앞장서서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과 관련 기술을 잘 이해하는 글로벌 경영자를 키우고, 나아가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본 대학원이 설립되었다. IT 분야의 경영자, 또는 미디어 분야의 경영자를 키우는 대학들은 많은 반면, 두 분야를 아우르는 경영자를 키우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KAIST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본 대학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국내 IT 산업은 전체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며, 콘텐츠 산업은 아직은 그 규모가 작지만 수년 내에 IT에 근접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서는 이 두 분야를 아우르는 경영자를 키우는 만큼 교과 과정을 만드는 것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정보미디어 경영특수논제'와 같은 수업은 현업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과목이다. 이 과목은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기업에서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와 시장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교육하는 그야말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프로그램이다. 아직 학문적으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수요가 매우 큰 웹과 모바일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웹 2.0 관련 기술, 동향, 문화, 정책 및 시장에 대해 강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한국의 IT와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리더로 구성된 최고의 자문위원단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조언 받고 있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IT와 미디어 기업들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교과목들은 주로 IT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KAIST 경영대학이 정보기술 경영분야에서 오랜 역량과 학문적 성과를 쌓아온 만큼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에 미디어 산업의 성장은 비교적 새로운 경영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문적 성과나 역량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교과목들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미디어 시장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 인력이 없어 교수 채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미디어에 관심이 높아 과반수 정도가 미디어 쪽에 진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과 학자적인 소양을 함께 갖춘 교수진을 충원해 이 분야의 수업을 조만간 개설할 계획에 있다.

KAIST-Northwestern LLM 프로그램

KAIST 경영대학은 경영학과 법률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2006년부터 미국 최고의 로스쿨(Law School) 중의 하나인 노스웨스턴 로스쿨(Northwestern Law School)과 손잡고 법률 경영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LLM 프로그램을 두 해째 운영하고 있다. KAIST LLM 과정은 미국 법대 교수의 직강을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일 뿐 아니라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까지 다루어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할 수 있겠다.

LLM 과정은 법률과 경영을 접목한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으로 법조인에게는 경영실무 지식을 경영인에게는 법률 전문 지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국내 기업체의 지적재산권, 국제거래, 국제법규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중앙정부 주요부처 공무원들과의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해 향후 국내 법률 분야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LLM 프로그램은 총 9과목(국내 8과목, 해외 1과목)을 12개월에 이수하는 단기 집중 과정으로 기업체 법무와 지적재산권 담당자, 관련 법조인에게 적합한 국제계약, 국제통상, 해외투자, 지적재산권 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세계화에 맞추어 법률과 함께 경영 실무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MBA 기본 과목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과정은 학업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 저녁과 주말에 강의를 진행하고 해외 과정은 1과목 수강 외에도 미국 현지 주 법원, 연방법원 참관과 시카고 소재 일류 법률회사, 미국변호사협회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LLM 프로그램 교육내용

Law Course	Preview Lecture	- 모든 강의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본 강의 전 1주간 프리뷰 강사(Review Instructor)의 강의 및 학습지도 교육과정 - 한 과목당 총 15시간 강의로 구성
	Lecture	- 노스웨스턴 법과대학이 구성한 최상의 교수진에 의한 강의와 토론, 사례분석 등 미국 로스쿨식 교육과정 - 한 과목당 2주간에 걸쳐 총 30시간 강의로 구성 (시험시간 별도) - 모든 강의는 100% 영어 진행 - 시카고 현지 캠퍼스에서 1과목 수강
MBA Course		KAIST MBA 영어 강의 과목 중 두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한미 FTA 타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중국, EU와의 FTA, WTO 협상, 증가하는 무역 분쟁 등 최근 전개되어 가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는 우리 나라의 경영 전반, 법조 전반, 정치 전반에 강력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KAIST는 이러한 도전을 해결해 나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스웨스턴 로스쿨-KAIST 경영대학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듀얼 디그리(Dual Degree) 프로그램으로 KAIST의 MBA 학위와 노스웨스턴 로스쿨의 LLM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두 대학의 만남을 넘어 국제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미법과 한국의 만남, 법조계와 산업계

의 만남이 KAIST 경영대학이라는 새롭고 역동적인 포럼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지적재산권, 자본시장, 국제거래, 국제세법 네 분야에 초점을 맞춘 법과 경영의 만남으로 한층 더 전문화되고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

이번 호에서는 KAIST 경영대학 교과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경영학과에서 시작한 경영학 교과과정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경영공학 전공, 테크노 MBA, IMBA, Executive MBA, 금융 MBA, 정보미디어 MBA, LLM 프로그램으로 세분화, 전문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과과정은 다양한 정보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학교의 인프라와 환경을, 그리고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의 역량과 이를 이해하고 실제 경영 환경에 구현해낼 수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KAIST의 교과과정은 이미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체계와 내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일부 교과목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설되어 경영대학의 오랜 전통과 학풍을 자랑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고 본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교과과정 육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학교, 교수진, 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F**

오리알(OREAL) 사람들



시장 및 전략설계 연구실

➡ 이병진 기자



소비자, 기업, 산업, 또는 국가가 주어진 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립하는 '전략'과 이들 각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무대인 '시장'.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요 연구 분야로 다양한 연구를 지속하는 곳이 있다. 바로 KAIST의 오리알(?) 사람들, 시장 및 전략설계 연구실이 그들이다.

시장 및 전략설계 연구실은

1979년에 설립된 '시장 및 전략설계 연구실'에서는 시장 메커니즘 및 기업의 경쟁 전략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전략'과 '시장'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연구 이슈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데, 에너지·환경 경제 및 경영, 전략 경제학, 디지털 경제 및 산업·기술 경제, 시장 및 규범 설계론(환경, 인터넷 및 e-비즈니스)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근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및 사회 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연구실은 일명 '오리알(OREAL)'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애칭은 초창기 연구실 명칭이었던 'Operations Research and Economics Analysis Lab'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연구실의 연구 방향은 학문적 수월성과 실제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선 연구 그리고 Frontier

'시장 및 전략설계 연구실' 연구실은 1990년대에 환경 분야의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대에 앞서 연구했고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는 인터넷 경제의 이론 정립과 이를 실제 경영 현실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실 지도 교수인 안병훈 교수는 실제로 이베이(eBay)의 자문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 조직론의 양면 시장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데 양면 시장은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 관한 새로운 이론으로, 아직 연구 초창기에 있는 분야이다. 이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롭게 재등장하고 있는 사회 책임 경영과 사회 책임 투자 분야는 기존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

는 분야로, 기존의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경영학적인 관점 및 시장설계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연구와 팀워크의 조화로움

현재 연구실에는 박사과정 3명과 석사과정 1명이 재학중이며, 소프트웨어 시장전략 및 경쟁전략, 저작권, 옥션(E-market Place, 양면시장), 전력시장 설계, 사회책임경영,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석사과정에서는 주로 시장과 관련된 현실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이를 학문적 깊이가 있는 이론 분야와 결합시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주 1회 정기 세미나를 통해 각 학생들의 연구분야를 공유하며 수시로 진행되는 지도교수와의 세미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여 스터디를 하는 세미나가 있으며, 최근에는 게임이론과 전략경제학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구실의 단합과 학생들의 재충전을 위해 매년 여름 산이나 바다로 애틀을 가고, 겨울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스키장을 찾는다. 최근에 다녀온 곳 중 특히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곳은 단양과 설악산, 그리고 내림천에서의 리프팅이었다고 말한다.

연구활동으로 이룬 최근 수상실적

지도 교수인 안병훈 교수는 사회 책임 경영과 환경 경영 분야에서의 우수한 연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Aspen Faculty Pioneer Award'의 2006년 'Institutional Leadership Award'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안병훈 교수와 박사 과정 장대철, 정영조 재학생은 "양면 시장에서의 진입 가능성 연구"라는 논문으로 2006년 한국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이론 분야)을 수상하기도 했다.

Aspen Faculty Pioneer Award는 지속가능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의 연구·교육 지원기관인 Aspen Institute와 World Resources Institute가 공동주관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Lifetime Achievement Award, Academic Leadership Award, Institutional Leadership Award, External Impact Award, Rising Star Award 총 5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동문간의 활발한 교류

2007년 3월 현재 연구실 졸업생은 박사 과정 졸업생 20명과 석사 과정 졸업생 127명 (MBA과정 18명 포함)으로 총 150여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중인 박병원 동문(1978년 입학)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인 이승규 교수(1989년 8월 졸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졸업생들은 대학교, 대기업, 그리고 컨설팅 펌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홈커밍데이에는 1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으며, 매년 30~40여 명의 졸업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멘토 역할을 통해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있으며, 연구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오리알 사람들, 과학원의 또 다른 이야기...

시장 및 전략설계 연구실에서는 1998년 졸업생들의 연구실 생활과 직장 이야기들을 담아 <오리알 사람들, 과학원의 또 다른 이야기>(도서출판 석정)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다. 이 책에서는 김형욱, 남보우, 백승규, 이승규, 현재호, 문현주, 정현, 윤경림, 신창훈, 김용건 졸업생이 안병훈 교수와의 만남, 재학중 연구했던 분야와 에피소드 그리고 직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게임 규칙과 규칙에 의한 게임'이라는 주제로 게임 이론을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산업과 결부시켜 서술한 윤경림 졸업생은 하나로텔레콤을 거쳐 현재는 KT에서 신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문제와 재산권제도'를 주제로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기술한 김용건 졸업생은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근무하고 있다. **F**

자신의 이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도정에서...

개인적 손익계산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21세기에 꼭 필요하다고 믿기에,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작은 영웅들의 집단을 만들어보겠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설립해 이끌어왔다. 분야는 다르겠지만, 수많은 대학의 연구실에는 그 흔한 대중의 눈길도 한번 못 받고 열악한 연구실에서 젊은 나날을 불태우며 자기의 앞길을 다져가는 젊은 연구인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도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서로 비슷한 고뇌와 희열의 교차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얻는 경험과 지혜를 다수의 또 다른 젊은이들과 나누어보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위로를 해본다.

안병훈 교수 <작은 영웅들, 제자들의 글에 붙여> 중에서)

안병훈 교수는

시장 및 전략설계 연구실 지도교수로 1975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고, 1978년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경영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부터 KAIST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대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KAIST 사회적책임경영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입학 후 10년,
졸업 후 20년, 만의
뜻 깊은 만남

...

2007
Homecoming Day

➡: 이대상 기자



지난 5월12일, 서울 캠퍼스는 2007 Homecoming Day 행사로 분주했다. 매년 졸업 20주년, 입학 10주년 기수를 기념해 졸업한 동문을 한자리에 초청하는 자리인 Homecoming Day. 올해는 경영과학 13기와 테크노경영 3기, 경영정보 1~2기가 주 대상이 되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침부터 날이 흐리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만 같았다. 행사를 준비하는 스태프와 재학생 도우미들의 표정도 어두워 보였다. 날씨 때문에 행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된 탓이다. 다행히 행사 시작 전 동문들이 한두 명씩 도착해 행사가 시작될 즈음에는 많은 동문들과 그 가족들로 행사장 분위기는 한층 훈훈해지고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느라 분주한 동문들이 많이 보였다.

변화된 시간, 변화된 캠퍼스

오후 1시30분,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본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교가 자랑하는 첨단 연구시설인 미디어랩과 로이터 트레이딩 센터, 그리고 고위경영자 과정라운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미디어랩에 도착한 동문들은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허순영 교수의 소개로 선보인 미디어랩의 다양한 첨단 기능에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로이터 트레이딩 센터에서도 동문들은 발전된 교육 환경에 감탄했다. 6개의 가상 금융 기관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치된 모니터와 로이터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외부교육도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동문들도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06년 9월에 경영대학으로 변경된 조직 소개와 함께 KAIST 경영대학의 3개 대학원 체제와 경영대학의 조직, 인적 구성, 교과 과정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있었다. 경영대학장은 “KAIST 경영대학으로 개편되면서 학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World Top 10 Business School’로 발전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교 소개가 끝난 후 동문들과 가족들은 학교 측에서 마련한 식사와 와인을 즐기며 열

정적으로 공부했던 학창 시절의 추억과 근황에 대한 답소를 나눴다.

정해봉 신임 동문회장(경영과학 13기, 에코프론티어(주) 사장)은 “작년까지 에코프론티어가 경영대학 안에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 작년에 비해 발전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소감을 밝힌 뒤 임기 동안 동문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는 2007학번 학부 재학생들이 나와 ‘후배사랑 장학금 운동’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했다. 후배사랑 장학금 운동은 2007학번 학부 재학생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아름다운 후배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정한 후배에게 동문들의 모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을 기부하거나 KAIST 경영대학에 기금을 위임해 일반 장학기금으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 장학금은 성적, 가정 형편 및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해 수여되고 있다. 소개를 마친 후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힘써준 경영과학 13기와 테크노 3기, 경영정보 1~2기 대표의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다.

동기, 동문과의 돈독한 우의의 계기

피아니스트 윤효간 씨의 미니 콘서트 ‘피아노와 이빨’은 Homecoming Day 행사의 백미를 장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피아노와 이빨’은 2006년 5월부터 4차에 걸친 연장공연을 기록한 인기 콘서트로,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공연이다. 윤효간 씨는 이날 자신이 직접 편곡한 곡들을 연주하며 동문들에게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다. 특히 ‘오빠 생각’이란 동요를 연주하는 대목에서는 동문들의 합창을 유도해 열렬한 호응을 얻었으며, 많은 동문들이 어린 시절의 아련한 향수와 추억에 잠길 수 있었던 기회로 여겼다.

이번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은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준 학교 측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근 졸업한 진효선 동문(경영정보 2005학번)은 “이번 행사를 통해 졸업하고 회사에 복귀한 후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렸습니다. 지친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며, 다시 학교에 와보니 학교에서 보냈던 지난 2년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동기들의 참석이 적어 아쉬웠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공식 행사를 마친 동문들은 기수 별로 모임 장소로 이동했다. 기수 모임은 기수 대표의 사회로 동문가족들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더욱 돈독한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졸업 후에도 항상 학교에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석한 동문 그리고 교수들, 또 행사가 있기까지 수고한 직원 및 재학생 도우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재학생 도우미로 참석한 박현수 씨(테크노경영 2007학번)의 소감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도우미를 했던 저희들도 10년 뒤 이곳에서 저희 후배 도우미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에서 성공하신 선배님들이 자랑스러웠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동문들이 있어 뿌듯합니다.” **F**



KAIST MBA,
그들이
선택한 미래

Career Development

➤ 김현주 교수 _ MBA Director

매년 5월초가 되면 KAIST 경영대학 MBA들의 새로운 캐리어 선택 결과가 집계된다. 국내 최고의 전통과 실력을 자랑하는 KAIST MBA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2007년도 KAIST MBA 졸업생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했을까? 취업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의 MBA 인력 수요 현황과 최근 MBA 학생들의 진로 선호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률 97%의 KAIST MBA Class of 2007

2007년 2월에 졸업한 KAIST MBA는 총 177명으로, 모두 5개 전공 분야에서 배출되었다. 177명 중 98명의 학생들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순수하게 자기 개발과 경력 개발, 경력 전환을 목적으로 2년간의 교육을 이수했고, 이 학생들이 잡 마켓(Job Market)에서 경쟁해 새로운 경력을 쌓게 된 인력들이다. 그 외 78명은 기업에서 내부 인재 육성 목적으로 파견되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각 소속사에 복귀했다.

| KAIST MBA Class of 2007 취업현황 |

구 분	총 원	복 귀	취업대상	취 업	창 업	진 학	기 타	미 정	취업률
테크노경영	102	44	58	57	0	0	0	1	98%
금융공학	44	25	18	18	0	0	1	0	100%
경영정보	20	1	19	17	0	0	0	2	89%
텔레콤경영	10	7	3	3	0	0	0	0	100%
환경경영	1	1	0	0	0	0	0	0	-
합 계	177	78	98	95	0	0	1	3	97%

이번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97%로 과거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비교해보면, '05년 97%와 같은 수준이고, '06년 99%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취업 대상 졸업생이 꾸준히 증가해 98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KAIST MBA들의 취업 경쟁력은 여전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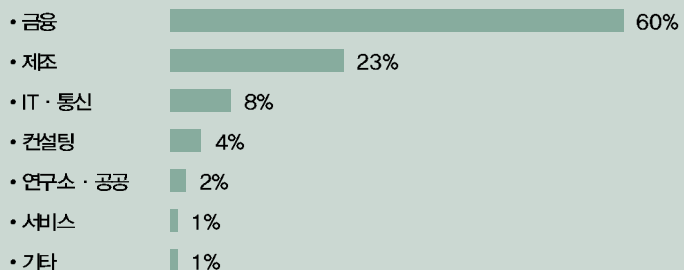
| KAIST MBA Class of 2007 취업현황 |

구 분	총 원	복 귀	취업	창 업	진 학	기 타	미 정	취업률
2007년	177	78	95	0	0	1	3	97%
2006년	189	92	93	1	1	1	1	99%
2005년	160	85	70	2	1	0	2	97%

금융권으로의 눈부신 약진

졸업생들의 취업 분야를 살펴보면, '01년 이후 꾸준히 많았던 금융권 진출이 올해에는 역대 최고인 60%(57명)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금융권과 함께 꾸준한 진출을 보였던 제조업과 IT 통신 분야는 제조업 23명(23%), IT 통신 분야 7명(8%)에 그쳤다. 그만큼 국내 금융권의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학생들의 금융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KAIST MBA Class of 2007 업종별 취업 현황 |



이는 국내 금융 산업의 약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은 금융사의 대형화, 금융 산업 내에서의 융·복합화와 금융 서비스의 확대, 각종 금융 신상품 출시, 국내 증시의 활황 등에 힘입어 보다 많은 금융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 시장이 아시아 금융 허브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금융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특히 금융공학 전문가 배출에 정평이 나있는 KAIST 금융 MBA는 물론, 일반 경영에 강점을 가진 테크노 MBA, 현대 금융 산업의 필수 요소인 IT 인프라 경영에 특화된 MIS MBA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성공적인 경력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

남들이 보기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하는 동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첫째는 과거 경력과는 달리 새로운 경력을 쌓을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Y씨는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H사(제조)에서 약 2년 4개월간 수출 재고 관리를 해왔다. 직장 생활을 하며 자연스레 경력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의 고민을 하게 되면서 금융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금융공학 전공으로 KAIST에 입학했다. 입학 당시부터 국내 은행들 중 신용 파생상품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S은행을 목표로 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학부 전공이나 경력이 금융권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인턴십 등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현업 분위기를 파악, 경력 전환을 준비했고 S은행의 신입행원 프로세스에 대비하여 준비, 합격했다. 과거 경력을 버리고 신입으로 입학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금융공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업으로 삼아,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에 즐겁기만 하다.

두 번째 동기는 현장에서의 업무만으로는 전문 지식의 한계를 느껴, 경력 분야는 연장을 해 나가면서 역량 개발의 목적으로 MBA 과정을 이수하는 케이스다. 입학 전 P사(식품 제조)와 K사(외국 제)에서 총 4년간의 마케팅 경력을 쌓았던 J씨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녀는 학부에서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현업에서 학부 전공과는 다른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늘 마케팅 전문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껴왔다. 2년간의 테크노 MBA 과정을 이수하면서 특히 마케팅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했고, 졸업 후에는 S사(전자 제조)의 글로벌마케팅실에 입사했다. 마케팅을 비롯해 경영 전반에 대한 2년간의 학습은 물론이고, 테크노 MBA 과정을 함께 마친 동료 학생들과의 네트워크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전한다.

세 번째 동기는 연봉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다. 올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임금 상승률은 평균 53%로,

지난 3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2005년 22.7%, 2006년 39.2%). 올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졸업생은 L씨였다. 그는 S사에서 7년의 기간 동안 IT 서비스 관련 해외 영업을 주로 담당하다가 테크노 MBA 과정에 입학했다. MBA 2년차부터 G사(I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VoIP 시장에 눈을 뜨게 되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큰 프로젝트 수주로 실적을 보였고, 졸업과 동시에 채용되었다. 디렉터로 입사하면서 받게 된 연봉은 사이닝 보너스와 성과급 예상치를 포함해 1억2800만 원 선. S사를 퇴사할 당시 연봉의 178% 상승이다. L씨의 사례가 흔하진 않다. 본인은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또한, 성과급 비율이 30% 이상인 만큼 계속 같은 연봉을 받을지는 자신이 없다고 겸손해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연봉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업을 바라보는 감각,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역량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일 것이다.

MBA들의 선택, 그들의 미래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서 새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MBA생들이 학업에 투자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이다. 기나긴 인생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나의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20년간의 나의 '업(業)'이 재정의된다.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만큼 많은 고민이 뒤따른다. 다만, 현재의 재학 생활에게, 또 앞으로 KAIST MBA를 꿈꾸는 이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 첫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MBA 과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나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공부를 하다 보니 관심 분야가 넓어지고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 둘째,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관련 경험을 최대한 많이 가지라는 것이다. 경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나의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은가? 셋째,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다. 경영에도 의사 결정이 중요하듯 나의 인생 경영에서도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번 내린 의사 결정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인생은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긴 여정이기 때문이다.

가을을 준비하는 홍릉 캠퍼스의 학생들은 새삼 고민에 빠지고 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선문답 같지만, 미래는 언제나 있다. 그 질문은 1~2년의 고민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닌가 한다. **F**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화두를 공감하다

Being Globally Responsible
Conference 2007 at CEIBS,
Shanghai

☞ 윤보영 _ 테크노 MBA 2006
박수진 _ 테크노 MBA 2007
정승환 _ 테크노 MBA 2007



2006년 가을학기, 칭화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가 있는 동안, 다시 시작된 조모임과 세미나, 수업, LAB 생활 등이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할 즈음 CEIBS 주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회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주제여서 눈길이 가기도 했지만, 조금은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재충전하고 싶어 참가신청을 했다. 결론적으로 CEIBS에서의 며칠은 내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얻은 시간들이 되었다.



이번 CEIBS 주최 CSR은 중국을 포함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20여 개의 경영대학 학생 대표들이 참여했고, 강사진도 UN을 비롯해 CSR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교수와 선두에서 CSR을 실천하고 있는 회사 중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매 세션 중, 혹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Global Network"를 만들어 가는 외국 학생들의 모습이었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선을 밖으로 향하다

그들은 정말로 적극적인 자기 PR을 하고 있었다. 단순히 먼저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잘할 수 있는지 등을 각 나라 특유의 억양으로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몇 마디의 더듬거리는 영어를 할 바엔 침묵으로 일관하겠다, 너무 나서면 주변 시선이 뜨거워지니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있자'는 내 안의 모습이 조금씩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순수 토종 중국인 학생들조차도 자신의 무대를 '중국'을 넘어 '세계'로 간주한다. 그러다 보니 같은 MBA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비영리 단체에서부터 컨설팅, 금융, 개인 사업 등 관심 분야에 따라 각각 접근하고 있었고, 그 경로가 너무 다양해 서로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외부에서 KAIST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KAIST가 한국의 훌륭한 인재들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해외에 나가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면, 한국의 'Stanford', 한국의 '칭화대학교'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KAIST MBA"의 브랜드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그 첫걸음의 주역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것이다. 조금만 시선을 밖으로 향하는 우리의 작은 도전들이 모여 강력한 KAIST MBA의 브랜드 파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환경오염에 대한 각 나라의 생각

이 회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각 나라의 환경에 관한 발표였다. 중국, 홍콩, 태국, 인도, 그리고 한국 대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각 나라의 환경오염 실태는 심각했고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같은 경우 최근 환경 규정을 지키지 않는 3,176개에 이르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2007년 5월에는 자연보호구역에서의 모든 영화 촬영을 금지시키는 등 다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국의 환경오염에 관한 발표는 우리 KAIST 대표단이 맡았고 환경오염 이슈를 잘 나타내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소개했다. 간척사업의 진행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 토론하기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한국에서 크게 이슈화되었던 주제여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과 계속된 환경 단체와의 갈등을 설명하면서 도중에 사업이 중지되었던 것도 전달했다. 현재 거의 마무리된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환경관련 개선방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범적인 CSR 사례인 유한킴벌리의 환경 친화 활동을 소개했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나자 중국과 홍콩 학생들이 찾아와 간척 사업의 사례가 자기 나라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광범위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났고 정부의 대책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 차원의 사회 책임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업의 사회 책임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고 결론을 내으로써 사회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상 깊었던 'Atlas Copco'의 사회에 대한 책임

다양한 주제를 다룬 기조연설과 워크숍 이외에 인상 깊었던 세션이 바로 해외기업들이 CSR을 어떻게 기업 운영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몇 개의 기업 중 대표적이 한 회사를 소개하자면,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Atlas Copco'라는 기업이 있다. 이 회사는 압착기, 발전기, 건설 및 굴착 장비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매출의 98%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이 기업의 CSR과 관련된 활동은 우선 이들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뿐 아니라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경영 시스템(EM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해 IS 14001 인증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 9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회계 보고서 외에 유지능력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매년 발행을 하는데, 이 리포트에는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이 기업의 지탱능력 전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중 경영 윤리와 사회적 환경적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실행 경영 코드(Business code of Practice)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와 환경, 고객, 직원, 동업자, 주주 등 5가지 분야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기업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보고한다. 이러한 모든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의 Atlas 기업과 직원에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회사, 또는 M&A가 된 회사 또한 이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우리가 보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기업의 사회 봉사와 기부, 또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거래라고 생각하지만, 'Atlas Copco' 이외에도 기업 전반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고, 매해 성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으며, 한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CSR에 관심이 필요할 때

둘째 날, 저녁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CEIBS(China European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을 졸업한 한국인 'Lee'와 대화할 시간이 있었다. 현재 상하이에 있는 컨설팅 회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CSR 수행을 위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CEIBS 재학 시 BGRC 주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그 외 UN에서도 대외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CSR 수행을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필요로 하기에 수요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며, 한국의 MBA 학생들은 얼마나 CSR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을 하게 되었다. 관련 과목 개설도 드물고, 개설이 된다 해도 환경과 CSR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강하거나, 국제적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MBA 학생은 있는지 말이다. 해외에서는 앞으로 기업의 중요한 활동의 한 분야일 뿐 아니라, 잠재적 기회가 많은 비즈니스로 생각한다. 우리 KAIST MBA 학생들도 이제 이 분야로 시야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F**

중국이라는 코끼리를 공략하는 법

...

상하이 프로그램 체험 후기

➡: 황여진 · 김영수 _ 경영공학 2006
(취재: 이경민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교 MBA 학생과 함께 체험한 상하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세계 최고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중국의 잠재력을 몸소 체험하고, 또한 중국이라는 코끼리를 경제적으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서울 캠퍼스에서부터 중국 현지까지 이어졌던 상하이 프로그램을 살펴 보자.

한국에서의 '촌철살인' 강연

서울 캠퍼스에서는 한국에 진출한 다양한 외국계 기업 매니저들의 강연을 들었다.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의 문화적 시행착오라든지,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한국 임원진과 직원의 끈끈한 단결력에 기초한 끊임없는 노력 등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진솔한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웃으로 두고 있는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대처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다. 'Market Force'의 CEO로 있는 James P. Rooney 씨는 **"한국은 코끼리의 등에서 춤추는 발레리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인상 깊은 말을 남겼다.

"한국이 지금은 중국보다 앞서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는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앞을 가로막다가는 밧혀 죽고 말 것입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코끼리의 장단을 맞춰 준다면, 오히려 중국을 이용해 더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연을 듣고 중국과 한국의 공생관계에 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외환은행 CEO로 있는 Rich Wacker 씨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CEO들이 대부분 한국 문화에 낯선 외국인인 이유가 한국인 중 이 자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정세에 밝으면서, 한국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잘 아는 한국인 경영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책임감과 의지가 같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중국 현지의 외국계 기업이 살아가는 법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위치한 한국계,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을 방문했다. SKT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단순한 아웃소싱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자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독립적인 중국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아직 콜 센터나 단순 반복 노동 작업 위주인 외국계 중국 기업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두 도시 모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그 엄청난 잠재력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다만 도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도시가 상당히 지저분했다는 점에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이 같이 갈 수는 없을**까라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베이징의 경우 그 규모가 아주 방대했고, 반면 상하이의 경우 좁은 땅에 높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도심가는 흡사 서울이나 오사카의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시가지들을 조금만 벗어나자 빈촌들이 곳곳에 보였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제 발전으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가 파생되었다는 얘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던 USF 학생들로부터도 중국의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방문 프로그램이다 보니 중국계 유학생 또는 중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이 MBA를 마친 후 중국 본토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앞으로 경쟁력의 원천이 될 두뇌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그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전문을 넓히고 공부하고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보니 한국인으로서 뒤지지 말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기기도 했다.

USF 학생들과의 소중한 경험

USF 학생들과 한 팀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것도 값진 경험이었다. 꼭 찬 일정 중에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논의한 것은 북경에서 상하이로 가는 기차 안에서였다. 사업 계획서를 쓰기로 한 우리 팀은 상하이에 최고급 유치원(high-end preschool)을 설립하기로 했다. 중국은 빈부 격차가 크고 상류층일수록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는 성향이 있는데다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이런 성향이 더욱 짙어져, 우리의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했다. 뽁뽁한 프로그램 일정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 진행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 교류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17시간의 시차와 언어적인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했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득하고 싶었지만 생각한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무엇

보다 영어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아무리 실력을 쌓아 전문가가 된다 해도 언어의 한계가 있다면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하니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또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문화를 겪고 이해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아쉬움, 그리고 더 큰 발전을 위한 한 마디

돌이켜보면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강의를 듣고 북경과 상하이의 현재 모습을 본 점, 중국 문화 체험 등도 좋았지만 미국에서 온 MBA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세계 곳곳의 친구들을 사귄 것이 가장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이들과 함께 한국과 중국을 돌아보며 국제화라는 단어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엄청난 크기의 자금성을 다 구경하고 난 뒤 추위에 떨며 '스타벅스' 커피숍에 들어가 다같이 마신 커피 한 잔, 상하이 클럽에 가서 USF 친구들과 밤을 지새운 마지막 밤, 상하이 호텔 50층에서 즐긴 호화로운 저녁식사, 300위엔짜리 티셔츠를 20위엔에 사 입고 좋아하던 중국에서의 쇼핑 등 여러 가지 많은 추억들이 기억에 남는다.

예년에 비해 중국에 머무는 기간이 열흘 정도로 늘어나 중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좋았지만, 중국의 체계적인 투어에 비해 한국에서 머문 기간은 단순히 한국 학생들에게만 서울 투어가



말겨져 너무 짜임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정도는 버스를 대절해 민속촌과 같이 개개인이 가기에 먼 장소를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중국 못지않게 훌륭한 우리 나라의 곳곳을 미국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면 한국을 알리는 데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F**

‘섬세하고 꼼꼼한’ 여성의 감성, 그리고 KAIST MBA의 자부심으로

MBA 여동문을 만나다

시니어 컨설턴트 최윤정 동문(테크노 MBA 2002)과 금융권 매니저 한명희 동문(금융 MBA 2000).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성’이라는 것과 KAIST MBA 과정을 거친 인재라는 것이다. KAIST가 국내 최초로 MBA 과정을 개설했을 때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여학생은 2003년 13%를 지나 2007년 21%로 증가해 있다. 막강 여성 파워를 자랑하는 최윤정 동문과 한명희 동문을 함께 만나 보자.

➡: 최원석 기자

현재 하는 일과 간단한 경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윤정 동문 > 저는 현재 Bearing Point에서 Strategy, People & Transformation(SPC) Team 소속으로 인사 조직 컨설팅을 수행하는 시니어 컨설턴트(Senior Consultant)입니다. KAIST MBA 입학 전에는 SK 네트워크 인사팀에서 인사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명희 동문** > 1994년부터 5여 년 간 회계 법인에서 주로 은행, 증권 등의 금융 기관 감사와 기타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UBS AG 파이낸스 부서에서 Internal Control Manager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의 각종 규제 비율 등 규제 항목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 통제를 위해 설정한 각종 한도와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이 감지되는 경우 주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KAIST MBA를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최동문 >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영학이라는 비즈니스 환경 전체를 알고 그 속의 게임 룰을 예견하고 싶다는 ‘호기심’, 거기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한 ‘**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KAIST MBA는 국내에서 최고의 MBA 과정이라 고민할 필요도 없는 선택이었고, 확실히 제 경력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한동문** > 지속적으로 금융 업종에 근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금융 업종에 관련된 일을 계속하려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후 향후 경력을 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학교를 수문했죠. 처음엔 해외에 있는 학교들을 열심히 찾았지만, 우연히 KAIST MBA에 금융-공학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진학했습니다.

속하고 계신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최동문 >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혹자는 ‘비즈니스 케이스(Business Case)’를 공부하고 영어 인터뷰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저는 학교 수업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수업의 지식과 사고 과정이 분해된 편린이 아닌, **종합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서의 자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한 틀에 맞춘 생각의 전개나 문제 해결보다는, 전체적

KAIST MBA
연도별 여학생 입학 추이

연도	여학생수명	여학생 비율(%)
2003	26	13%
2004	40	19%
2005	24	13%
2006	47	22%
2007	54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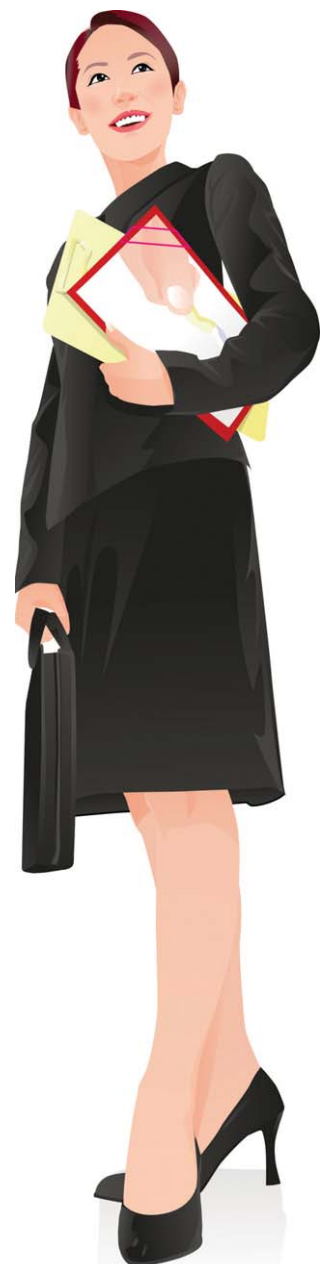
정보를 소화하고 재해석하려는 '나만의 욕심'과 '훈련'이 컨설팅 회사 입사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재학 중 <Financial News>지 외국인 투자유치 논문 공모에 응모도 하고 남들은 번거롭다고 여긴 졸업 논문도 쓰며 체계적으로 사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학 중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교환학생 경험으로 'Chinese business in global perspective', 'Small & medium businesses in Taiwan', 'International business marketing' 등의 프로젝트 과목을 들으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밤새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즐거움도 터득했습니다. 특히 그때 알게 된 대만친구 '카리사(Carissa)'는 대만 미디어정책국에서 일하며 제가 회사에서 수행하던 프로젝트를 위한 유용한 조언자 역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동문** > 어떤 회사를 염두에 두고 노력했다기보다 경력을 쌓으면서 금융업 중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일단 내가 시장에서 원하는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 놓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기회가 왔을 때 올바르게 분별해서 선택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졸업 후 회계 법인에 재입사해서 금융업 관련 감사, 자문 서비스를 하면서도 업무 환경이 허락하는 한 업무 영역에 전문성을 가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 동문의 취업 분야를 보면 두 분이 근무하는 금융권과 컨설팅 분야로의 진출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두 분야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동문 > 컨설팅 업무는 다분히 도전적이며 목을 조이는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늘 깨어 있고, 도전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며, 최첨단(cutting-edge) 지식의 향기를 몸소 향유해 경험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참으로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진, 또 정진해야 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여성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섬세하고 꼼꼼한' 여성의 감성과 컨설팅이란 분야는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 후 바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실무 경험을 통해 기업과 산업을 이해한 후 다음 단계(Next step)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클라이언트들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와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인재상'을 질문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KAIST 후배님들은 **자질과 비즈니스 윤리(Business Ethic)가 충분하니 여기에 약간의 '깡'과 '똥끼' 정도가 추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깡'이 고통의 문서 작업과 작업 마감 시간, 끊임없는 논쟁에도 굴하지 않는 근성이라면, '똥끼'는 남들의 가정과 프레임을 부정하고 다소 특이하게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저도 '깡'과 '똥끼'를 더 연마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한동문** > 외국계 금융권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 부분이 자유로워야 하고, 뚜렷한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자신이 다양한 문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외국계 금융사의 경우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국내 금융사보다 좋은 편입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좋고 실질적으로도 각각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일하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동문 > 앞으로는 자신이 어떤 분야의 플레이어고,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를 필요가 있고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문화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체질을 기르는 데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느 분야의 일이든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동문** > 우리 KAIST MBA 후배님들은 많은 경험과 열정으로 충만한, 제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KAIST 경영대학 졸업생이라는 자부심만 잃지 않는다면 원하는 바를 꼭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F**



한국을 사랑한 중앙아시아의 야심가들

경영공학 몽골 3인방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KAIST 경영대학에도 많은 외국 학생들이 있다. 그 가운데는 한국을 사랑하는 나라, 몽골 출신들도 있다. KAIST 경영공학 2007학번 체웨그메드 씨, 그리고 올해 졸업한 2005학번 바트자르갈 동문과 몽흐에르덴 동문도 몽골 출신이다. 푸른 하늘과 끝없는 초원이 아름다운 나라. 몽골 출신 경영공학 3인방을 만났다.

➡: 황성원 기자

KBS TV 인기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로 잘 알려져 있는 체웨그메드 씨. 그녀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홍보대사로 선정되는 등 최근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바트자르갈 동문은 올해 졸업하고 신한은행 프로젝트 금융부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팀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몽흐에르덴 동문은 (주)나이스채권평가에서 공모 ELS 평가 업무를 맡고 있다.

어떤 계기로 한국에 오게 되었나요?

체웨그메드 > 몽골 국립대 재학 중 한진그룹에서 장학생(6기)을 뽑는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진그룹에서는 해마다 8명(2007년 이전은 5명)의 몽골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장학생들은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림대학교 등에 입학하는데, 체웨그메드 씨는 2003년 2월 인하대학교에 입학해 올해 경상대를 수석 졸업했다. 바트자르갈 동문과 몽흐에르덴 동문도 한진그룹 장학생으로 2001년 한국항공대학교에 입학했다.

한국에 있는 몽골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체웨그메드 > 2007년 현재 약 1200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2003년 400여 명에 비해 짧은 기간 많이 늘었습니다. 몽골유학생협회(<http://www.cmox.org>)가 구성되어 있고, 이 협회에서는 몽골 유학생들의 체육대회, 학술회, 해외여행, 송년회, 몽골을 위한 키포지션 대회를 주최합니다.

한국 생활 중 가장 기억나는 점으로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체웨그메드 > 나이에 민감한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살만 차이 나도 존댓말 쓰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몽골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습도가 높은 것도 몽골과 차이 나는 점이었고요.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생활은 어떨까요?

체웨그메드 > 학부 때부터 계속 기숙사 생활을 해 왔고 한국에 온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어려움은 별로 없습니다. 공부량은 많지만 동기들이 다들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많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체웨그메드 씨에게 보람찬 학교생활을 위해 조언을 해 주신다면?

바트자르갈 > 대학원 2년 동안 경영공학 동기들과 연구실 식구들 덕분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기들, 연구실 선배들과 같이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기들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외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바트자르갈 동문은 2006년 UW Business School이 주관한 “2006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Competition(GSEC)”에서 본교 경영공학 학·석사 학생들과 함께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Self-Powered Radios in Mongolia (Korea), Manufacture hand-cranked AM radios in Mongolia for use by rural population without access to electricity”라는 주제로 참가해 Grand Prize를 수상했다. 한편 체웨그메드 씨는 학부 시절인 2005년에 산업경제연구소 자유무역협정(FTA) 논문 대회에서 일본과 멕시코가 FTA를 맺을 경우 농산물 관세율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체웨그메드 >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엔 아시아 경제협력 부서에 근무하면서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트자르갈** > 경영대학원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에 첨가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실무를 익히고 직무 경험을 쌓아서,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 금융 전문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 금융 기법과 서비스를 신흥 국가들에게 알리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비즈니스의 앞길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몽흐에르덴** > 파생상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평가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생상품 시장 규모는 2006년 400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우리 나라 코스피(KOSPI) 200 옵션 거래 규모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파생금융 전문가와 시스템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몽흐에르덴** 동문이 맡고 있는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 연계 증권)도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졸업생의 입장에서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바트자르갈 > 제가 KAIST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동기(fellow)”입니다. 학업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같이 공부하면서 옆에서 배우고, 고민을 쉽게 해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것도 KAIST 학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몽흐에르덴** > 논문 주제를 미리 선정하고, 취업 준비도 미리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듯해요.

KAIST 학위 과정을 이수한 몽골인은 이들 세 명이 처음이며, 앞으로 이들이 한국과 몽골 양 국가간의 사업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자의 분야에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인터뷰에 참여한 세 동문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F**



● KBS TV 인기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로 잘 알려져 있는 체웨그메드 씨 ● 신한은행 프로젝트 금융부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팀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바트자르갈 동문 ● (주)나이스채권평가에서 공모 ELS 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몽흐에르덴 동문

발전기금

KAIST Business School External Advisory Committee
Inaugural Meeting

May 23, 2007



Building Excellence Together!

KAIST 경영대학 자문위원회 역할 및 기대

☞ 김영걸 교수 _ 대외협력위원장

KAIST 경영대학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그리고 전략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External Advisory Committee: EAC) 첫 회의가 지난 5월23일 제주도 샤인빌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본교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한 자문을 미션으로 하는 EAC는 국내외 기업 CEO와 칭화대, 게이오대 경영대학장 등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이규성 (주)코람코 회장, 강보영 안동 메디컬그룹 이사장, 김남구 한국 투자증권 부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Qian Yingyi 칭화대학교 경영대학장 등 자문위원과 배순훈 부총장 겸 경영대학장, 이재규 교수, 김영걸 대외협력위원장 및 김현주 교수, 배보경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 소개와 학교 현황 보고, 그에 따른 현안 이슈 토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KAIST 경영대학 출범에 따른 3개 대학원(테크노, 금융, 정보미디어) 조직과 특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CEO 자문위원들은 각 대학원 별로 산업 특성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MBA 인력 양성과 지역 전문가들에 대한 특화된 교과 과정의 개발 등 실질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미국·유럽 MBA, 칭화대 MBA 프로그램 등과의 비교를 통해 KAIST MBA 과정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다. 배순훈 부총장이 주재한 현안 이슈 토의에서는 본교가 세계 톱 10 경영대학들과 어깨를 견주기 위해 필요한 5대 과제(Funding, Impact Research, Innovative Education, New Facility, Global Leadership)에 대해 이슈 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5월 첫 발을 내디딘 KAIST 경영대학 자문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의 모임(5월, 11월)을 통해 국내외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KAIST 경영대학이 'World Top 10 Business School'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위원들의 소속기관과 KAIST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산학협동 연구를 활성화시키며 Wharton, Northwestern, Stanford, 칭화, 게이오 등 해외 명문 대학들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수·학생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KAIST 경영대학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일류 경영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제2회 경영대학 자문위원회 모임은 11월30일 KAIST 경영대학 흥릉캠퍼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발전기금 기부자 감사식 진행

지난 5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 샤인빌 리조트에서 열린 제 4회 KAIST CEO Forum에서는 첫 날 만찬시간을 빌어 '발전기금 감사식'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 1년간 발전기금을 기부한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1천만 원 이상 기부자들에게는 감사장과 감사패, 그리고 꽃다발을 전달하며 동문들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I 감사패 수여 대상자 명단 I

- AM 25기
- (주)티맥스소프트 박대연 (전 KAIST 교수), 안일수 부사장 (전기전자과 '77 졸업)
- 가수 김정호
- 삼성종합기술원 임형규 원장 (전기전자과 '78 졸업)
- (주)다사인 김종남 대표이사 (AM 21기, 26기)

II 2007 상반기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II

- 경영과학 13기 고광수, 구현모, 김현수, 김형도, 서건수, 서민수, 서병모, 신창훈, 안현실, 우기홍, 원종훈, 이상욱, 이영욱, 이응규, 이주환, 이호석, 장명석, 장영, 장우석, 정재호, 정자석, 진찬용
- 테크노 3기 강승득, 권두안, 김국일, 김태년, 김태식, 남동윤, 박강욱, 박익현, 안선환, 양태철, 엄영훈, 은진표, 이옥산, 이장렬, 이재익, 이종면, 이현태, 임성무, 임채광, 정익석, 최근영, 최재호, 최현대, 홍석용
- MS 05학번 강철규
- ATM 9기 강신웅, 강희전, 구분완, 김성수, 김세중, 김승곤, 김정목, 도동희, 문정웅, 박명선, 박철희, 박훈기, 배석두, 백상엽, 변재일, 성욱조, 송경섭, 오덕원, 우병기, 우창명, 유건선, 유경선, 유병규, 유성식, 유성호, 윤용석, 윤일중, 윤재준, 이명수, 이종봉, 장관영, 장교중, 장재현, 조민래, 조성식, 좌선호, 허연수, 현재환, 황중성

III 후배사랑 장학금 약정자 명단 III

- 경영공학 석사 05학번 박성혁, 허준, 강창모, 김경곤, 임재환, 최원혁, 정광재, 정성훈, 김동수, 민병선
- 경영공학 학사 03학번 민주현
- 경영공학 학사 04학번 허주원, 김진주, 조동희, 모승한, 김다혜, 김동엽, 이은경
- 경영공학 학사 05학번 남정우, 임형수, 나희정, 김응식, 이민재, 강소희

KAIST NEWS

KAIST-SMU, 학·석 공동학위제도 국내 첫 도입

본교는 지난 7월 10일, 싱가포르 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과 MOU를 체결하고, SMU에서 3년 동안 학사 과정을 밟은 뒤 국내로 돌아와 2년 동안 본교 경영대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3+2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2월 졸업하는 우수 고등학생을 위해 말까지 선 발해 4개월짜리 집중 어학 코스(브리지 프로그램)를 마친 후 이들이 2008년 8월 말부터 SMU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SMU에서는 학부 6개 분야 중 2개 분야(경영학, 정보시스템학, KAIST 경영대학에서는 석사 과정(M.S, MBA)의 모든 과목이 수강 대상이 되며,



5년간의 과정을 마친 후 SMU 학사 학위와 KAIST 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싱가포르 경영대학(SMU)은 2000년 1월에 정부 기금으로 세워진 싱가포르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설립 후 단기간에 경영학 선두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교과 과정은 비즈니스 및 경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학생들은 100% 영어 강의와 토론식 수업, 다국적 기업에서의 인턴 실습 등으로 현장과 국경 없는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김보원 교수, 제25회 정진기문화상 수상

테크노경영대학원 김보원 교수가 제25회 정진기문화상에서 경제경영 분야에서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저술해 현대 기업 경영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급망 경영(SCM)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연구 중심 대학” 명성 잇는 수상 소식

지난 5월 25일과 26일, 재무관련 5개 학회(한국선물학회,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한미재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7년 공동학술연구발표회 박사과정 컨소시엄에서 정구열 교수, 임영덕 박사 과정 학생이 “Tax Avoidance, Capital Structure and Cost of Debt: Korean Evidence”라는 주제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6월 1일에 열린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는 Technical 부문에서 이병태 교수, 김은진 박사 과정 학생이 “Impact of Net-Based Customer Service on Firm Profits and Consumer Welfare”라는 주제로 최우수논문상을, 김경재 동문(동국대 교수), 안현철 동문(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이 “Two dimensional reduction technique of Support Vector Machines for Bankruptcy Prediction”로 우수논문상

을 수상했다. Behavioral 부문에서는 이희석 교수, 김영식, 홍순근 박사 과정 학생의 “Exploring Self-Image Congruity and Regrets for IS Continuance based on the Expectation-Confirmation Model”과 한인구 교수, 이주민 박사 과정 학생의 “Customer Co-Production and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in e-Commerce”가 우수논문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계 석학에게 듣는다, 금융경영 특강시리즈

금융전문대학원이 지난해 가을 세계적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자산운용 특강 시리즈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해외 유명 석학들을 초빙해 금융경영 특강을 개설했다. 초빙된 강사는 200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앙글(Robert Engle) 뉴욕대 교수를 포함해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등 톱클래스 저널의 편집장을 역임한 존 롱(John B. Long) 로체스터대 교수, 천 창(Chun Chang) 중국유럽 국제비즈니스스쿨(CEIBS) ABN AMRO 석좌교수, 제임스 앵(James Ang) 플로리다주립대 석좌교수 등으로 기업 재무와 리스크 관리 분야의 강의와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상반기 ‘재학생 경력공유의 장 세미나’

경력개발센터에서는 기업 파견 재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취업전략 공유를 위해 2007 상반기 ‘경력공유의 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첫 주부터 매주 진행된 세미나는 재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별로 본교에 파견되어 수학중인 학생들을 초청해, 회사 및 직무설명과 더불어, 회사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취업준비 및 경력개발에 대한 조언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그 동안 취업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채널로는 채용설명회 및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세미나, 동문 초청 산업별 세미나 등이 개최되어 왔으며, 재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기업에서 파견된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상반기 ‘경력공유의 장 세미나’는 금융감독원을 시작으로 한국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은행, 삼성전자, SKT, KTF 등 총 9개사가 참여했으며, 매년 정례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KAIST NEWS

IT중소기업 경영자 워크숍 개최

지난 7월 10일, KAIST 정보미디어 연구센터(센터장: 안재현, 윤창번 교수),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IT벤처기업연합회(회장: 서승모)가 주최하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후원하는 'IT중소기업 경영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IT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IT중소기업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컨버전스 시대의 IT 기업 전략(윤창번 교수)', '신규 상품 개발과 위험 관리(안재현 교수)', '중소기업 CEO Leadership과 혁신(김영배 교수)',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전략(배종태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

KAIST-한국금융지주 금융전문가과정 개설

금융전문대학원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함께 금융전문가 과정(KKIF, 과정 책임: 강장구 교수)을 개설해 지난 6월 15일 입학식을 갖고 오는 9월 22일까지 총 36강차, 108시간을 진행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중견 핵심 인력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함양시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최고 역량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개설된 이번 과정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금융 기법과 선물·옵션, 리스크 관리, 파생상품 운용 등 이론과 실제를 균형적으로 구성했다. 금융전문대학원은 정규 학위 과정인 금융MBA 과정(2년)과 금융기관 중견실무직원의 보수 과정인 금융전문가 과정(단기)을 개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사원부터 임원까지 다양한 직급의 인력이 파견되고 있다.

• 과정 문의: 금융공학연구센터 양해미(02-958-3161, yhm@business.kaist.ac.kr)

EMBA 4기, English Immersion Program

지난 6월 15일부터 총 4박 5일간 EMBA 4기 학생들이 용인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연수원에서 열린 EMBA의 핵심 프로그램 "English Immersion Program"에 참가했다. 영어로 모든 발표가 이뤄진 이번 프



로그램은 특히 베티정 교수 이하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와 매 시간 반복된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최종 프레젠테이션 완성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학생들은 이

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은 물론, 힘든 과정을 함께 이겨낸 동기들과 강한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 더욱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CJ, '뜨거운 여름'으로 재충전하다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총 7박 8일간 CJ 계열사의 주요 임원들을 대상으로 CJ-KAIST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과정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 CJ 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전략경영, BPR,

마케팅, 조직관리, 재무회계의 5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학문적 지식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다룸으로써 경영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임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새벽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매일 밤 자정이 되도록 토론을 이어갔으며, 강

행군 속에서도 새벽 6시 요가 수업 등에 높은 출석률을 보이는 등 과연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학업우수상을 수상한 김상임 경영지원 실장(CJ 푸드벨)은 "오랜



만에 학교로 돌아와 학창시절 못지않은 학구열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성취감을 안고 돌아갑니다"라는 소감으로 CJ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된 이번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늘 처음처럼, ATM 9기

지난 7월 4일 최정현홀에서 ATM 9기 수료식이 열렸다. 4개월간의 교육을 완성하고 수료증을 받은 이날 수료식은 한 주 앞서 가졌던 '전략보고서 발표대회'의 우수보고서 시상식을 겸했는데, 보고서 가운데 'IT와 패션 산업에서 컨버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형'이라는 주제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SK C&C 정재현 전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수료식에서는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좀처럼 이루기

어려운 '무결석'의 기록

을 다섯 명이나 달성해 수료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편 ATM 9기 동기회에서는 이날 1천 5백만 원의 발전기금 기탁증서를 전달했다. 수료식 후 진행된



만찬 시간에는 그 동안 KAIST에서 보낸 시간들을 추억하고 앞으로 동문으로써 함께 할 앞날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했다.

AIC 12기 기념식수

지난 7월 3일 AIC 12기 SUPEX 경영관 원형광장에 모여 수료식에 앞서 학교와 AIC 과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기념식수 행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일년



내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AIC 12기 모두 지난 3월 AIC 과정에 입했던 한결 같은 마음가짐으로 각자가 속한 분야에서 미래의 경영자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KAIST NEWS

[인사] 신임 테크노경영대학원장, 금융전문대학원장

본교는 지난 6월 19일부로 경영대학 테크노경영대학원장에 한인구 교수(●), 금융전문대학원장에 정구열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한인구 교수는 U.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회계정보시스템 경영학박사 학위('90)를 취득했으며 회계 및 재무정보시스템이 주 연구 분야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 전공 학과장을 역임하고, LG투자증권, LG Philips LCD 사외이사 및 SK Telecom 자문 교수 등 학계와 산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금융 MBA 과정 책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정구열 교수는 Univ. of Florida에서 박사 학위('87)를 취득했으며 재무 회계를 전공 분야로 한다. 한국산업은행, Deloitte&Touche, 안권 회계법인에서 CPA 등으로 활동하기도



한 정 교수는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aruch College), Texas Christin University를 거쳐 2000년부터 본교에 재직해 왔다.

[부고] 이진주 전 테크노경영대학원장 별세

이진주 전 테크노경영대학원장이 지난 7월 24일(화) 저녁 별세했다.故 이진주 교수는 서울대 기계공학과와 Northwestern Univ.를 졸업하고 지난 1975년부터 2006년까지 약 31년간 박사 35명과 석사 91명을 배출하고, 해외논문 40편과 국내논문 37편을 엮어내는 등 본교에서 혁신연구와 과학기술정책분야의 후학양성과 연구 발전에 큰 힘을 기울여 왔다.

故이진주 교수의 영결식은 지난 7월 26일(목) 오전 KAIST 경영대학 원형광장에서 진행됐으며, 배순훈 부총장 및 안병훈 초대 대학원장, 한인구 테크노경영대학원장과 제자 대표 배종태 교수 등 KAIST 경영대학 전 교직원이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2008학년도 MBA 모집안내

- 전공분야 **테크노 MBA • IMBA • 금융 MBA**
 정보미디어 MBA • Executive MBA
- 원서접수(On-line) 2007. 10. 8(월) ~ 11. 2(금)
- TEPS 특별전형 2007. 11. 6(화)
- 1차 합격자 발표 2007. 11. 26(월) 15:00 이후
- 면접시험 2007. 11. 28(수) ~ 12.1(토)
- 최종 합격자 발표 2007. 12. 10(월) 15:00 이후
- 전공 관련 문의 **테크노 MBA • IMBA**
 Tel 02-958-3642, 3975
 http://www.kaistgsm.ac.kr
- 금융 MBA**
 Tel 02-958-3121, 3167
 http://kgsf.kaist.ac.kr
- 정보미디어 MBA**
 Tel 02-958-3641, 3661
 http://ksim.kaist.ac.kr
- Executive MBA**
 Tel 02-958-3401, 3403
 http://business.kaist.ac.kr
- 입학 관련 문의 **경영대학 교학팀**
 Tel 02-958-3214

KAIST 경영대학 주요일정

- 7/28(일)~8/11(토) 정보미디어 MBA과정 여름학기 해외연수
- 8/3(금) 태국 Thammasat Business School 교수단 방문
- 8/7(화) 09:30 2007 박사과정 컨퍼런스 개최
- 8/15(수) 14:00 현대중공업-KAIST 글로벌리더과정 입학식
- 8/17(금) 2006학년도 학위수여식(후기)/여름학기 종강
- 2007 현대·기아자동차-KAIST 글로벌리더과정 입학식
- 8/24(금) 17:00 현대중공업-KAIST 글로벌리더과정 수료식
- 8/24(금)~25(토) EMBA 통합워크숍
- 8/25(토) 14:00 2007년도 CJ-KAIST GMP과정 수료식
- 8/28(화) AIC 13기 입학식
- 8/29(수) 17:00 ATM 10기 입학식
- 8/30(목) 07:30 K-CEO 총동문회 조찬 포럼
- 8/30(목) 16:00 AIM 27기 입학식
- 8/30(목) 19:00 [입학설명회] 개인자격 대상 'KAIST MBA Open School' (서울캠퍼스)
- 8/31(금) 17:00 KFMP 5기 입학식
- 9/5(수) 11:00 [입학설명회] 기관별 교육담당자 대상 (조선호텔)
- 9/3(월)~6(목) 2007 KAIST Business School Job Fair Week (서울캠퍼스)

